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 초기 대응의 힘입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화재와 맞섭니다. 불길은 삼시간에 번지고, 유독연기는 순식간에 집 안을 채워 대피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빨리 화재를 알았다면, 소화기 하나만 곁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불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화재는 초기 5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불길이 커지기 전에 경보음을 울려 가족이 깨어날 시간을 주고, 소화기는 작은 불씨 단계에서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두 장치가 있을 때 화재는 피해 없이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대형 재난으로 번집니다.

실제 사례는 이를 증명합니다. 새벽녘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가정에서, 거실에 설치된 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려 가족이 즉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화했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 한 농가 창고에서는 배선 문제로 불이 번졌으나, 거주자가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인근 비닐하우스로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의 유무가 피해 규모를 좌우합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5~1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은 단 1~2분 만에 도화됩니다.

소방관의 출동만 믿기에는 시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에 각 가정에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안전망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초기 대응이야말로 가장 큰 안전이고, 그 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강진소방서 강진119안전센터장 김금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붕(天崩-하늘이 무너짐)이라 하고, 자식이 먼저 가면 참적(慘戚-참혹한 아픔), 즉 땅이 꺼지는 아픔이라 한다. 부모는 땅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호곡성(號哭聲, 소리내어 슬피우는 소리)은 창자를 끊는 듯 참담하다. 그래서 단장지애(斷腸之哀)라고도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다 키워 놓고 잃는다는 것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이다.

강성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와 자녀(7)-자녀 잃은 슬픔(정약용)

이 깊어 너의 이름을 농(農)이라고 지었다. 걱정하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화(禍)가 닥쳤기에, 너에게는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하려 한 것뿐이다. 이것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다. 나는 죽으면 흔쾌히 황령(黃嶺)을 넘어 열수(洑水, 한강)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데 살아 있고, 너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데 죽었으니,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내가 네 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네가 살 수는 없었겠지만, 네 어미의 편지에, ‘애가 아

버지가 돌아오시면 나의 흥역이 곧 낫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천연두가 곧 나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것은 내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 마음의 의지를 삼으려 한 것인데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정말 슬픈 일이다. 신유년(1801년, 순조 1년) 겨울에 과천(果川)의 점사(店舍, 작은 가게)에서 너의 어미가 너를 안고 나를 전송할 때, 나를 가리키며 ‘너의 아버지가 시다.’라고 하였다. 네가 따라서 나를 가리키며 ‘나의 아버지다.’라고 했으나, 너는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을 실제로는 알

지 못했을 것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웃사람이 집으로 떠나갈 때, 소라껍질 2매(枚)를 보내며 너에게 주라고 하였다. 네 어미의 편지에, ‘애가 강진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 껍질을 찾다가 받지 못하면 풀이 꺾이곤 하였는데, 그 애가 죽어갈 무렵에 소라 껍질이 도착했습니다.’ 하였다. 참 슬픈 일이다. 너의 외모는 빼어난데, 코 왼쪽에 조그마한 검은 사마귀가 있으며, 옷을 때에는 양쪽 송곳니가 드러난다. 아아, 나는 오로지 네 모습만이 생각나서, 거짓 없이 너에게 고하노라.”

이 글에 나오는 정농(丁農)은 정약용의 넷째 아들인데, 세 살로 요절하였다. 다산이 강진에 유배중일 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무덤에 묻어 주는 형식의 편지를 썼던 바,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신의 순탄치 않은 인생사에 대한 회한이 묻어나는 묘비명이다. 특히 자식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는 대목에서, 부모로서의 애절한 마음이 묻어난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대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

배터리는 고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전 중 발열, 외부 충격, 불량 제품 사용은 배터리 폭발 및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일정 온도를 넘어설 경우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터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비정품 충전기 사용, 차량 내 장시간 방치, 충전 중 외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명확하다. ▲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과열 시 즉시 충전 중단 ▲낙하·압력에 의한 손상 주의 ▲고온 환경에서 보관 금지 ▲취침·외출 시 충전 지양 ▲폐기 시 지정된 수거함 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리튬이온배터리 역시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면 안전한 도구이지만, 방심하면 위험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박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음력 8월 22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text describing their luck for the day.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It also lists the publisher and editorial board member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